



女行

여자 여행

Issue
No. 5

푸른 겨울,
하얀 봄의 기적
시즌 오카편



푸른 겨울, 하얀 봄의 기적
SHIZUOKA

2박 3일



1일차

슈젠지 온천마을



2일차

슈젠지/시즈오카



3일차

시즈오카 시내



1
일
차



* JR 시즈오카 역

아직은 차가운 겨울 공기에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아침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싣고
봄기운이 만연한 일본 시즈오카로의 여행을 떠났다.
1시간 40분의 비행,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따뜻한 바람에 봄이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봄바람에 들떠서인지 이른 아침의 피곤함도 잊은 채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비는 마치 환영 인사라도 하듯
잠시 멈춰 주었다.



어느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미소를 띄며
기다림의 여유를 보여주는 시즈오카 사람들.

그 미소들 속에서
내 마음도 한층 풍요로워졌다.

笑顔



* JR 시즈오카 역



오늘의 목적지는 시즈오카 시내가 아닌 이즈반도에 위치한 슈젠지라는 작은 온천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시즈오카 시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공항을 시작으로 시즈오카 역에 도착해 도카이본선을 타고 미시마 역을 거쳐 슈젠지 역에 도착, 다시 버스를 타고 마을까지 들어가는 약 2시간 30분이 넘는 기나긴 여정이지만 여진이 충족된다면 신칸센을 타는 방법으로 여행의 시간을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슈젠지 마을까지 가는 여정은

시즈오카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미시마 역에서 환승하는 여정을 선택했다.

모처럼 타는 기차이니 도시락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는 <에키벤> 문화가 있는데,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해당 노선 및 지역 특유의 도시락을 먹는 것이다. 첫 신칸센 탑승이니만큼 역에서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사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두근두근거린다.

신칸센
新幹線

자기 발로
걸은 거리만이
진짜 보물이
되겠네요.

영화 <봄을 짊어지고> 中





修善寺温泉町 슈젠지온천마을

두 발자국.

신칸센 탑승 후 25분,
환승역인 미시마 역에서 내려
이즈하코네 철도 도슨즈선을 갈아타고
중점인 슈젠지 역까지 가야 한다.
결코 슈젠지 역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220엔의 버스비를 내고
다시 슈젠지 온천마을까지 들어가야 한다.

작은 마을에서 더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슈젠지 온천마을.
그곳은 좀처럼 쉽게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잔잔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안정될 때쯤,
드디어 이즈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 중 하나인
슈젠지 온천마을에 도착했다.

기나긴 여정이 무색하리만큼 이 마을은
아기자기한 료칸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멀리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와 무성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포근한 마을이었다.

뉘엿뉘엿 지고 있는 노을을 보며
이 포근한 마을의 산책길에 나섰다.



세상이 크다는 걸
실감했더니
냉장고의
빈 자리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N을 위하여>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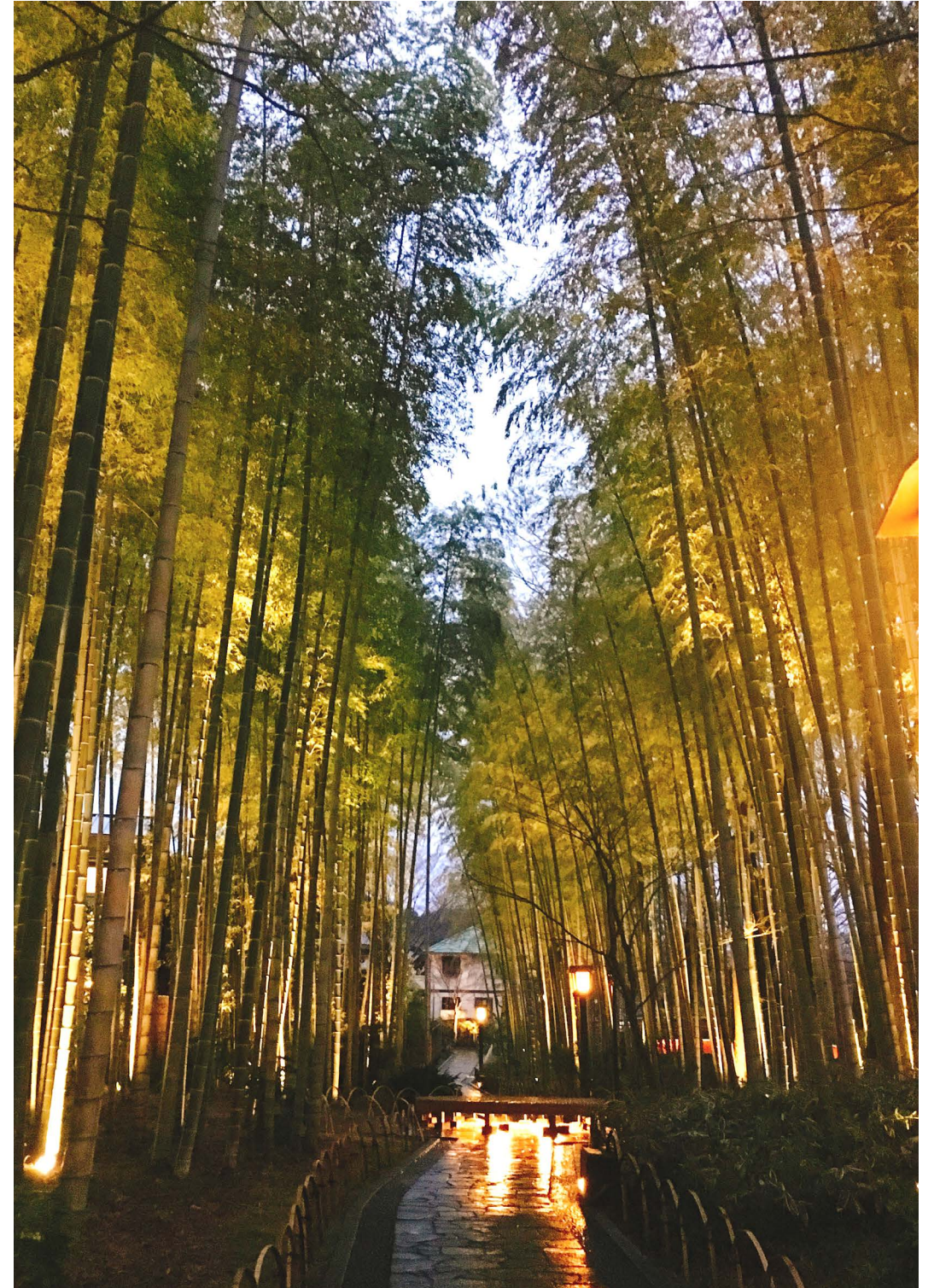


치쿠린 노 코미치

竹村の小径

비는 다시 추적추적 내렸고
바람도 조금은 차가워졌다.
슈젠지가 문을 닫는 5시쯤,
마을에 크게 종소리가 울렸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아직 5시라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풍경들



| 슈젠지 온천마을 |
시즈오카 역 >> 도쿄 행 신칸센 탑승(25분) >> 미시마 역 >> 이즈하코네 철도 도슨조선 탑승 >> 슈젠지 역 >> 슈젠지 온천마을 행 버스



2
일
차



* 슈젠지 온천마을

창밖에서 한가득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셔 커튼을 젖혔다.
전 날의 비 내리던 슈젠지 마을의 풍경과는 확실히 다르다.
벚꽃은 꽃봉오리 속에서 얼굴을 빼꼼히 내밀던 참이었고,
거기에 촉촉이 젖은 잎사귀들은 빛을 받아 푸르름을 더했다.
3박 4일 내리 비가 올 거라는 예보와는 달리
파란 하늘은 있는 힘껏 모습을 드러내주었다.

왠지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여행을 가거나 길을 지날 때,
 마주하게 된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
 바로 골동품 가게.

골동품 가게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천천히 흘러간다.
 이내 나는 쿼퀴한 냄새들 사이에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구석구석 둘러본다.
 그렇게 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오래된 브로치 하나를 쟁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오래된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어린 시절 보물 찾기를 하던
 그때가 떠올라서 일까.



* 대나무 숲(치쿠린노코미치)



* 사쿠다 소바



슈젠지를 떠나야 하는 이튿날 아침,
아침 식사는 소바로 정했다.
이곳에는 많은 소바집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배우 이시엔 님이 다녀온 맛 집,
'사쿠다'로 향했다. 단돈 500엔이면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야 없기 때문! 주방을 중심으로 대충
감싸고 있는 듯한 대나무발 천막 속으로
들어가면 사쿠다의 진가가 나온다. 이제
까지 이런 노상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의
가게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아늑하고 정감 가는 느낌이 신비로워 보
이기까지 했다. 그런 분위기에 걸맞게
'사쿠다'의 메뉴는 <오마카세>.

즉, 주인장에게 맡기는 것이다.
소금과 와사비의 믹스 '판소바' > 튀김이
올라간 '카케소바' > 그리고 따뜻한 육수
를 부은 '소바유'
우리의 '카케소바'에는 감자튀김을 올려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옆자리의 일본인
부부에게는 튀김 종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게 아닌가.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면 튀김썸이야
잘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다.
우리에게 '시엔'상과는 다르게 일본어 능
력자가 딱하니 있다고!

사
쿠
다
さ
く
だ

修善寺
행운의
슈젠지

다섯 발자국.

슈젠지는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작은 절이다.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 절 모퉁이에서 오미쿠지(おみくじ)를 발견했다.
일본의 절이나 신사 등에서 길흉을 점치기 위해 뽑는 제비로
신사나 절의 한편에 매달아 놓는 일종의 운세뽑기이다.
100엔을 통에 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비를 뽑았다.
두근두근.

이럴수가! 대길운세라고 쓰여 있는 종이가 딱하니 나온 것이 아닌가.
찬찬히 운세를 읽어보고 기쁜 마음으로 새끼줄에 제비를 매달았다.
슈젠지에게서 받은 이 작은 행운에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고
얼굴에 웃음꽃이 멈추질 않았다.

행복은 늘 가까이, 비나이다.





제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춰준다

| 슈젠지 | 슈젠지 온천마을 버스정류장 >> 도보 2분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일본 드라마에는 슈젠지 온천마을이 배경으로 잠깐 나온다. 두 남녀가 비오는 슈젠지 마을의 빨간 다리들을 건너며 료칸에서 온천을 즐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드라마여서인지 많은 커플들이 이 마을을 찾는다.

슈젠지 마을에 있는 5개의 빨간 다리를 연인과 함께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맛있는 와인처럼
응축된 삶이 되길.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中



| 만월당(滿月堂) | 슈젠지 >> 도보 3분



ようこそ伊豆市へ
Welcome to Izu City!

南伊豆
IZU C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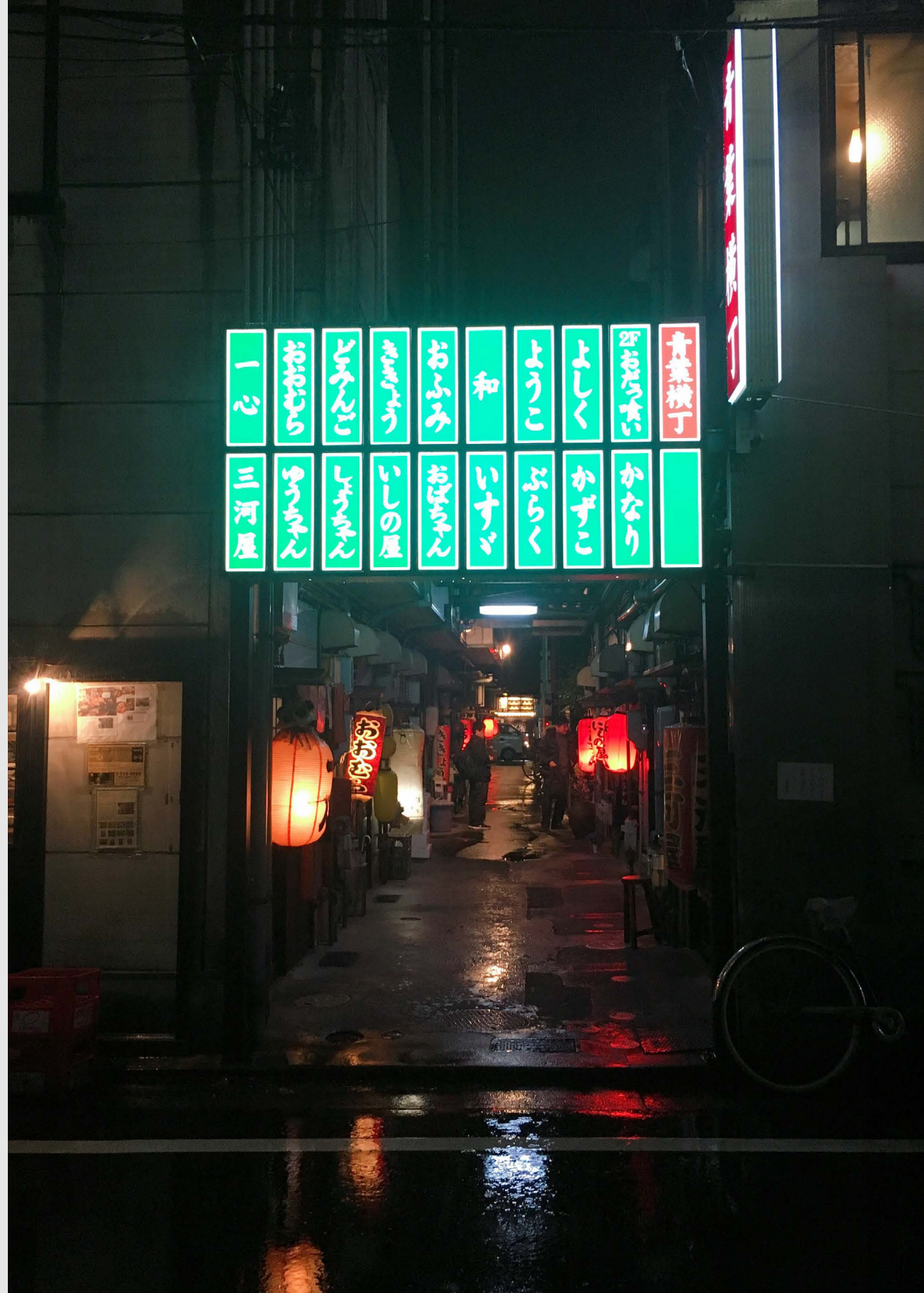
しずおか元気旅



青葉横丁
할머니와
20엔

시즈오카 하면 와사비와 사쿠라에비, 그리고 오뎅이다. 보슬보슬 내리는 빗속을 지나 이윽고 도착한 오뎅거리리는 TV에서 보았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오바요코초(青葉横丁)가 아닌 아오바 오뎅거리(青葉おでん街). 바로 한 골목 차이이긴 하지만 아오바요코초가 좀 더 작고 조용한 뒷골목 느낌이 강하다. 비도 오는데 뒷골목이면 어쩐가. 골목을 한번 둘러보고 커트머리에 귀여우신 할머니가 홀로 TV를 보고 계산 가게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즈오카 오뎅과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최근에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일본말 밖에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시즈오카는 올해 한번도 눈이 내리지 않아서 후지산 경관이 작년보다는 멋지지 않다는 이야기, 인젠간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잔돈 20엔을 깎아주시며 “작은 돈이지만 할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해줘”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 마음이 순두부가 되어버렸다.



3
일
차



* 슌푸성 공원

지난 이틀간의 여행이 조용하고 따뜻한 여행이었다면
마지막 날인 오늘 여행은 시즈오카 시내를 돌아다니며
도시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다.
확실히 봄은 봄인지 시즈오카에는 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다.

시즈오카의 길거리는 소도시에 걸맞는 조용한 분위기를 품고 있다.
가볼 곳이 수두룩한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에 취했는지 꽤나 많이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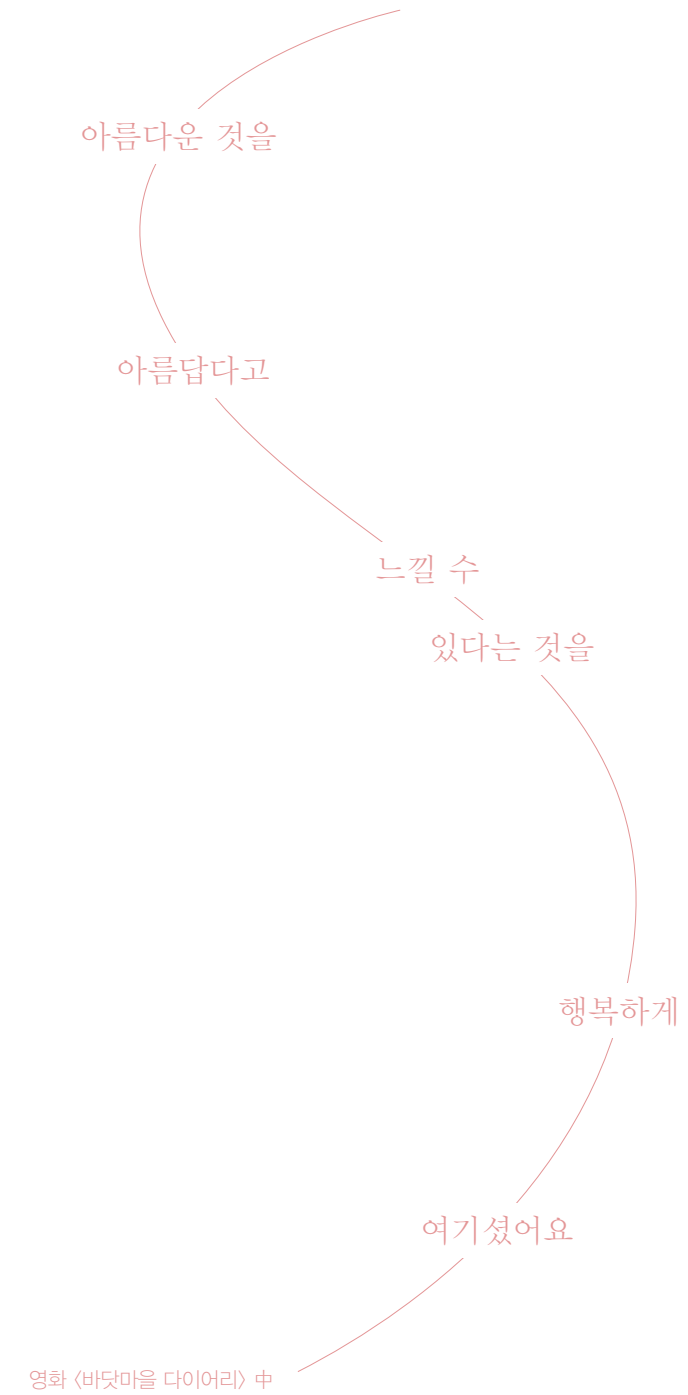
| 사와야카(さわやか) | 신시즈오카 역(新静岡駅) >> 세노바 쇼핑센터 5F

さわやか

사와야카를 아시나요?

1~2년 전에 어느 일본방송에서 소개된 것을 보고 언젠가 시즈오카에 가면 꼭 <사와야카>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와야카로 말할것 같으면 시즈오카 맛집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에게 더욱 유명한 곳이다. 일본인 친구에게 <사와야카>에 다녀왔다고 하니 가장 먼저 “얼마나 기다렸어?”라는 말을 한다. 사와야카는 오래된 경양식집 분위기에 걸면만 살짝 익힌 주먹고기를 철판에 내으면 자신이 원하는 굵기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마치 삼겹살집에서 회식한 듯한 고기냄새가 온몸을 휘감는 것만 빼면 자랑스러운 한끼 식사였다.





디저트의 나라
キルフェボン

시즈오카의 녹차를 맛보기 위해 <나나야>라는 녹차 전문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힘들게 힘들게 찾은 나나야 앞에서 나는 그저 허탈한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

허무한 마음을 부여잡고 10걸음 정도 옮겼을 때 블로그에서 본 유명한 디저트 가게를 만나게 되었다. 프랑스어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인가’라는 뜻의 <키르훼봉>. 타르트 성지라 불리는 이곳은 제철 과일을 사용해 시기별, 계절별로 다양한 타르트를 선보이는 곳이다. 신선한 과일들과 농후한 타르트의 맛이 이곳 <키르훼봉>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 주었다.

단,
밥값보다 많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키르훼봉(キルフェボン) | 시즈오카 역(静岡駅) 북쪽 출구 >> 도보 10분



晴間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인가!



아홉 발자국.

책 <마법의 순간>에서 파올로 코엘료는 말했다.

여러모로 보나 시간 낭비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웃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 감정단 야하타점(静岡鑑定団) | 시즈오카역 남쪽 출구 >> 도보 20분

日本酒
やきとり
ビール
てっばん
居酒屋
やきにく

静岡 橋下



バラタイス

銀河

魚目

串カツ拳伝承店

のよう一本芯が通った熱い男たちが極めた究極の串カツ。その華から放たれた串カツの想い。世界が震した!!! っくらうまい!!

工事中
水産

魚

17:00
5:00

改装工事中
黒金水産
3月中旬
リニューアル

祝静岡

毎日のハッピー
CRAZY BALL
串カツ

BEHIND

비하인드

Behind.1

시즈오카 시내에서 묵었던 호텔 1층에는 작은 Bar가 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퇴근길에 지쳐 들른 Bar의 모습과도 같았다. 심지어 호텔 투숙객에게는 20%할인이라니 놓쳐서는 안된다는 마음에 마지막 밤 방문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다. 아, 어제도 올걸...



Behind.2

나나야는 시즈오카에서 유명한 녹차아이스크림 가게이다. 녹차 함유량을 7단계로 설정해서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녹차 매니아들에게는 최고의 가게라고 할 수 있다. 아침 일찍 나나야만을 바라보며 왔지만 이곳은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이다. 그렇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Behind.3

시즈오카 시내에는 골든요코초라는 작은 이자카야 거리가 있다. 메뉴판을 비롯해 모든 것이 일본어로 쓰여있기때문에 현지의 분위기를 느끼기엔 제격이다. 특히 이곳에 간다면 꼭 화장실을 들려볼 것! 공중 화장실인지 의심될 만큼 핑크색으로 가득한 벽면과 쾌적한 환경이 인상적이다.



Behind.4

이 병 우유까지 다 마셔야 일본에서의 온천을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치 우리나라의 바나나우유 같은 존재로 많은 일본인들이 온천이나 목욕을 마치고 이 추억의 우유를 마신다고 한다. 이 우유에 대한 추억은 없지만 오늘 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다.



静岡

시즈오카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나요?